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도심 속 녹색공간 확충방안 모색

사회·복지 코로나19 백신여권제도 점진적 시행
도시빈민을 위한 주거안정 프로그램 시행

행재정·교육 특별한 재능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위한 '특성화 우수학교' 운영

도시교통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위한 '거리 및 고속도로 전략' 발표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아시아·아프리카〉		〈유럽〉	
뉴욕	윤규근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암스테르담	장한빛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싱가포르	이은주	베를린	신희완
샌디에이고	김민희	뉴델리	박원빈		유진경
샌프란시스코	박신아		박효택		홍남명
시카고	강기향	자카르타	박재현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올랜도	박혜진	도쿄	이선인	하노이	이희재
워싱턴 D.C.	이정근	광저우	손지현	스톡홀름	허윤희
하와이	임지연	베이징	정민욱	바르셀로나	박정수
휴스턴	이경선	상하이	문혜정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충칭	모종혁	런던	이용훈
토론토	고한나	칭다오	강경이	로마	서동화
		나이로비	한 울	피렌체	김예름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도심 속 녹색공간 확충방안 모색

중국 칭다오시 / 도시환경

도심 고밀화와 상업화로 자연친화적인 그린 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칭다오시는 공공 생태환경 조성과 도시녹화 사업에 주력. 이의 일환으로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확대, 보호수 및 노거수(老巨樹) 관리 강화 등 도심 곳곳에 입체적인 녹색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배경 및 목적

- 자연친화적인 녹색 생태공간 확보는 도시 주거의 쾌적도와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
- 최근 칭다오시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양질의 그린 인프라 조성을 주요 민생 현안으로 삼고, 공공 생태환경 조성과 도시녹화 사업에 주력
 - 2021년 6월 30일부터 실시된 <칭다오시 '제14차 5개년계획(2020-2025)' 임업 발전계획>에서는 '생태건설'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실천 목표를 설정
 - 2025년까지 '산림 그린 코리더(Green Corridor, 녹지회랑)와 수변 그린 코리더 조성 프로젝트 실시', '교외(산림) 공원 및 해변 공원, 강변(하천변) 공원 등 칭다오의 자연과 지형의 특색을 활용한 수변 인접 녹지 조성', '입체적인 녹지 조성 추진, 도시 녹시율(綠視率) 및 녹지율(綠地率) 증진', '스펀지형 공원(Sponge parks, 스펀지처럼 빗물 흡수, 침투, 정화, 재활용 기능이 가능한 공원) 건설 추진', '도심 녹지공원 품질 개선 프로젝트 전개, 근린공원/쌈지공원 등 도시공원의 지역별 촘촘한 분포 실현', '노거수(老巨樹) 관리 및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 이 중 최근 '도시 내 쌈지공원 조성'과 '보호수 및 노거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음

주요 내용

- 칭다오시는 유휴지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도심 곳곳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쌈지공원을 조성
 - 쌈지공원(口袋公園, Pocket Park)이란 고밀화된 도심부 곳곳에 산재하여 조성된 개방형 소규모 공원으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이나 도시경관 개선 기능 수행

- 많은 쌈지공원이 市 전역에 고루 분포하게 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도심 녹지공간 비율 확대
-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 기간 동안 칭다오市 내 312개소의 쌈지공원 조성 완료, 올해 31개소 추가 조성 계획
- 쌈지공원 조성 시 해당 지역의 특색 등을 최대한 반영해 공원마다 개성이 드러나도록 설계하고, 한정적인 공간 내에서 공원의 수용력과 쾌적도를 동시에 고려
- 사업 초반에는 녹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 위주로 입지를 선정했으나, 최근에는 시장 핫라인, 시민 소리함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우선 선정하는 추세
- 시베이(西北)구 구도심에 위치한 ‘창러위엔(昌樂園)공원’은 과거 공업 중심지였으나 이후 폐허가 되어버린 공간을 특색 있는 쌈지공원으로 재탄생시킨 사례
 - 이 지역은 칭다오에서 역사 깊은 공업지대로, 해당 지역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도시의 역사와 근대 공업의 발자취를 기억할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재현
 - ‘시베이 메모리’ 벽을 설치해 당시 이곳에서 탄생한 토종 기업의 브랜드 로고를 부조(浮彫)로 새기고, 해당 기업과 브랜드에 관한 설명을 덧붙여 중장년 세대들에게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는 기회를, 젊은 세대들에게는 칭다오 공업 발전의 기원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 공원 조성 초반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昌樂園(늘 편안하고 즐거움)’이라는 공원 이름도 시민 공모를 통해 확정
- 지역 내 보호수/노거수의 보호, 복원 강화 및 관리 체계화
 - 市 원림 및 임업종합서비스센터는 드론 촬영, 측량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지역 내 보호수 및 노거수 생장(生長)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 2020년 보호수 및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위한 ‘141’ 방안 제시
 - 141 방안은 ① ‘칭다오 수목(樹木) 클리닉’ 1개소 설립, ② 노거수 대상 4가지 진료서비스 제공, ③ 일원화된 노거수 관리방안 구축이 주요 골자
 - 현재 이 방안에 따라 보호수 및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온라인 칭다오 수목 클리닉 구축
 - 수목 클리닉은 국내 수목 보호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의료진과 첨단 설비를 기반으로 노거수와 녹지 보호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노거수 및 보호수에 대해 건강검사, 진료, 복원, 일상 관리 점검의 4단계 진료 서비스를 실시
 - ① 건강검사: 나무뿌리, 줄기, 가지, 병충해 등 수목 자체에 대한 검진과 받침대, 펜스, 토양, 벼락, 관리조치 등 주변 환경에 대한 검사도 병행

- ② 진료: 진단 결과에 따라 수목클리닉 의사가 진료방안(실시 절차, 구체적인 방식, 기술적인 요구사항 등)을 제시
- ③ 복원/복구: 진료방안에 근거하여 수목 응급조치, 복구, 복원, 보호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
- ④ 일상 관리 점검: 수목의 건강상태에 따른 일상 관리 조치 방안 제시
- 일원화된 노거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건강검사 제도, 수목 문서화 제도, 종합평가 관리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
 - 500년 이상 수령의 1급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해 매년 1회 건강검사 실시, 기타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해서는 2년에 1번 건강검사를 실시할 계획
 - 보호수 및 노거수 대상 건강상태 문서화 제도를 정착시켜 수목별 문서화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 이를 위해 1급 노거수, 보호수 및 2, 3급 노거수 대상으로 ‘신분증’ (수목명, 학명, 분류군, 수령, 보호등급, 관리보호 책임단위 등의 정보 포함)을 제작
 - 해당 수목에 대한 기술지원팀의 종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목별 개별 맞춤형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
- 현재까지 노거수 대상 수목클리닉의 건강검사, 진료, 보호 조치 등을 통해 치료가 시급한 훼손 수목 50여 그루가 복원되었음

기대 효과

- 도시 곳곳에 장기간 방치되어 온 공간을 시민을 위한 녹색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써 토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도시 녹지 경관 및 환경 개선, 도시의 활력 증대 등을 기대
- 수목 관리 제도 및 시스템 도입, 전문인력 배치, 개별 수목에 대한 평가와 맞춤형 관리를 통해 도시 내 수목의 질적 향상과 양질의 서식환경 조성, 도시 녹화 등이 가능

<https://view.inews.qq.com/a/20210905A028Z400>

<https://baijiahao.baidu.com/s?id=1709494659177996681&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709475167387393907&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710437046346900119&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710480011701095467&wfr=spider&for=pc>

<https://new.qq.com/omn/20200702/20200702A0320X00.html>

강 경 이 통신원, jiongli101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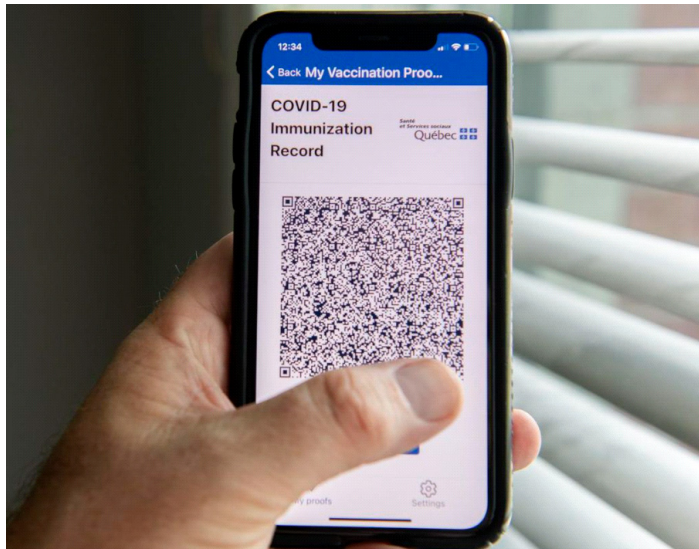
코로나19 백신여권제도 점진적 시행

캐나다 퀘벡주 / 사회·복지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자 일부 州를 중심으로 백신여권제를 시행. 9월 1일 퀘벡주를 시작으로 매니토바주와 온타리오주 등이 백신여권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증명서 제도를 시행. 이에 따라 이들 州에서는 州정부가 정한 대규모 시설 및 식음료업소 등을 출입할 때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여권을 제시해야 함

배경

-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올해 7월 말 기준 하루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해 9월 현재 4차 유행을 공식화할 정도로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자 연방정부가 주도하여 각 州정부와 공인된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
 - 퀘벡주가 가장 빠르게 9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 및 백신여권제를 시행
 - 매니토바주는 9월 3일부터,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9월 13일부터, 온타리오주는 9월 22일부터 백신여권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의 증명서 제도를 시행



[사진] 캐나다에서 백신여권제를 가장 먼저 시행한 퀘벡주의 코로나19 백신여권 앱

(출처: <https://www.thestar.com/business/2021/09/07/ford-government-tells-the-star-it-will-develop-vaccine-passport-app-in-house-in-six-weeks-despite-the-fact-that-quebec-app-took-four-months.html>)

주요 내용

- 퀘벡주는 캐나다 전국 최초로 9월 1일 백신여권제 시행에 들어가 비필수 사업장의 시설 이용 시 정부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백신 접종 증명서 및 여권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음
 - 7일 전까지 백신(화이자, 모더나 등)의 두 번째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 14일 전까지 얀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 시행 방법
 - 퀘벡주 주민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 문서 형태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주정부의 개인 보건 기록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소지
 - 상기(上記)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내려받아 개인 모바일 장치를 통해 소지
 - 백신코드(VaxiCod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소지
 - 백신코드에 저장된 개인 정보에는 백신의 세부 정보 등이 포함된 QR 코드¹⁾가 있으나, 이름 이외의 개인 정보와 개인 의료 또는 예방접종 기록에 대한 정보는 표시하지 않음
 -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 시설은 주로 대규모 시설 및 식음료 업체이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피트니스 클럽, 체육관 등 스포츠 및 체육 활동 관련 시설
 - 공연장,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 행사 및 축제가 열리는 장소
 - 주점과 음식점
 - 오락실, 테마파크, 놀이공원, 레크리에이션 센터, 수영장
 -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특수 지역
 - 사업장에서는 입장 고객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신분증과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
- 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적용하고 있음
 - 면제 대상자
 -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나 12세 미만 아동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확인서 발급

1) QR 코드(QR code, Quick Response code)는 컴퓨터가 만든 흑백 격자무늬 패턴의 코드로 기존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는 것으로 알려짐

- 교사, 학생, 보호자는 학교 행사 및 수학여행 시 예방접종 여권 제시 면제
- 노숙자가 식당, 쇼핑몰 및 식품점의 푸드코트를 이용할 때 예방접종 여권 제시 면제
- 면제 대상 시설
 - 식당의 드라이브스루 시설
 - 테이크아웃 카운터
 - 도서관, 박물관
 -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과 종교 행사장
 - 스파 및 사우나 시설 등
 - 운전학원
 - 사냥과 낚시를 할 수 있는 곳
 - 각종 사적 모임 및 단체의 회의장
-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등 관련 규정 위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페널티 적용
 -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나 제시 등 이행 여부를 직접 단속하지는 않지만, 불이행이 확인되어 신고되면 범칙금 부과
 - 증명서 제출 의무 위반자는 750달러, 해당 업체는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 또한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정책 평가

- 의료계는 백신여권제 시행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일반 시민의 출입이 잦은 업소와 고객 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업계에서는 대체로 코로나19의 추가확산을 막고 고객들이 안전하게 쇼핑과 외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
- 다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든 상황에서 여권 혹은 확인증 확인 의무가 업주에게 일임되어 이에 따른 업무 지연과 고객들과의 분쟁을 우려
 - 백신 미접종자를 소외시키거나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대형마트와 중대형 헬스클럽 등에서는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소규모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회원들의 입장을 거부할 경우 운영난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
- 한편,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앨버타주 등에서는 높은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

<https://www.quebec.ca/en/health/health-issues/a-z/2019-coronavirus/progress-of-the-코로나19-vaccination/코로나19-vaccination-passport#:~:text=Vaccine%20passports%20were%20introduced%20in,is%20protected%20against%20COVID%2D19>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how-quebec-vaccine-passport-works-apply-1.6151912>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도시빈민을 위한 주거안정 프로그램 시행

말레이시아 / 사회·복지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자치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위해 주거안정 프로그램인 ‘가족 주택 이니셔티브(Rumah Ikram)’를 발표. 수도권을 포함한 5개 지역 1,000가구에 월 124링깃의 임대료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할 계획

배경

- 코로나19의 여파로 도시 저소득층의 실업률 증가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의 실업률이 증가
 - 2020년 한 해 동안 말레이시아 정부가 시행한 이동제한령(Movement Control Operation)에 따른 일일 경제 손실액은 약 24억 링깃이며, 2021년 일일 추정 경제 손실액은 약 7억 5천만 링깃
 - 유니세프가 쿠알라룸푸르 거주 저소득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업률이 15%로 2배가량 증가했으며, 응답자의 63%는 생계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실업률 증가에 따른 임대료 체납 및 강제퇴거 등 주거 불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주택지방자치부는 ‘가족 주택 이니셔티브(Rumah Ikram)’를 발표
 - 주택지방자치부 장관은 ‘가족 주택 이니셔티브’를 새 내각이 달성해야 할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힘
- 도시 중심으로 이동제한령 시행
 -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도시 지역에 봉쇄조치 중 가장 강력한 국가회복계획(National Recovery Plan) 1단계 시행
 - 신규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률에 따라 지역별로 국가회복계획 1~4단계 시행
 - 신규 확진자 수 4,000명 이하·인구의 10%가 2차 백신 접종 완료 시 국가회복계획 2단계, 신규 확진자 수 2,000명 이하·인구의 40%가 2차 백신 접종 완료 시 3단계, 신규 확진자 수 500명 이하·인구의 60%가 2차 백신 접종 완료 시 4단계 진입
 -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5곳 중 께다(Kedah), 조호(Johor)는 1단계 지역이며,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슬랑오르(Selangor), 클란탄(Kelantan)은 2단계 시행 지역

주거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 주거 안정 프로그램
 - 정책 지원 대상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만 18세 이상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무주택자 가운데 월수입 3,000링깃 이하 가구
 - 주택지방자치부는 수도권인 쿠알라룸푸르, 슬랑오르, 말레이시아 북부 지역인 켄다, 동부 지역인 클란탄, 남부 지역인 조호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주거 지원 정책 신청과 처리 절차를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으로, 신청 일주일 내에 결과를 발표
- 주택 관리 기금
 - 주택지방자치부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환경 개선을 위해 수리와 정비, 보수 등을 진행하는 주택 관리 기금(Home Maintenance Fund)을 조성
 - 슬랑오르 지역에 2,700만 링깃을 포함해 6천만 링깃 할당
 - 말레이시아 반도¹⁾ 내 저소득층 임대주택 프로젝트는 총 3,519개로, 50만 세대를 공급
 - 임대주택 프로젝트 절반 이상은 수도권인 슬랑오르에서 시행

<https://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21/01/12/daily-economic-losses-from-mco-around-rm750m-cgs-cimb-research-says>

<https://www.edgeprop.my/content/1889186/malaysia%E2%80%99s-jobless-rate-rises-first-time-four-months-48-june>

<https://www.bernama.com/en/general/news.php?id=2003562>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1) 말레이시아 반도는 사바, 사라왁을 제외한 쿠알라룸푸르, 조호, 페낭 등이 위치한 지역

특별한 재능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위한 ‘특성화 우수학교’ 운영

인도 델리NCT / 행재정·교육

인도 델리NCT 정부는 특별한 재능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과정의 ‘특성화 우수학교’를 설립하고, 2021년 8월부터 20개 시범학교에서 입학 원서 접수를 시작. 델리NCT 정부는 향후 2년 이내에 약 100개의 특성화 우수학교를 설립할 예정

배경 및 목적

- 델리NCT 정부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적성과 재능이 입증된 우수 학생들을 발굴하고 특화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성화 우수학교’를 설립
 - 특성화 우수학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교육을 제공
 - 학생들은 첨단교육시설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아 국내외 명문 대학 및 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주요 내용

- 특성화 우수학교는 STEM¹⁾, 인문학, 공연 및 시각 예술, 21세기 유망 첨단기술을 포함한 특정 분야의 교육을 실시
 - 특별한 적성과 재능을 가진 9~12학년 학생들을 교육
 - 델리 내 국공립 및 사립학교 출신으로 선발시험을 거쳐 학생을 모집
 - 세계적 수준의 교육인프라와 교사진을 갖추
 - 암기 방식의 학습과 평가에서 벗어나 학습역량과 실천에 따른 평가에 중점을 둠
 - 수준 높은 전문교육을 위해 세계 유수의 전문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
 - 관심 분야의 프로젝트, 현장 방문, 인턴십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기회를 폭넓게 보장
 - 델리교육위원회는 159개국 5,5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학교 커리큘럼 IB²⁾와 협력
- 델리NCT 정부는 향후 2년 이내에 약 100개의 특성화 우수학교를 설립할 예정
 - 첫해인 2021~2022년 학기에 20개의 특성화 우수학교를 신설

1)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결합한 STEM 교육

2)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

-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8개 학교
- 인문학 분야 5개 학교
- 공연 및 시각 예술 분야 2개 학교
- 21세기 첨단기술 분야 5개 학교
-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교육을 통해 우수한 과학 인재를 양성
 - 국내외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권위자와 교류하고 과학 분야 연구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생들은 졸업 후 국내외 명문 의학, 과학 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 공학, 의학, 간호학, 제약, 건축학, 순수 과학 분야 등으로 진학할 수 있음
- 인문학 분야
 - 과학 및 수학 관련 과정과 함께 사회과학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
 - 비판적인 사고와 세계적인 안목을 키워주는 교육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
 - 학생들은 졸업 후 법학, 컨설팅, 언론, 공공 부문, 비영리 부문, 교육 분야 등으로 진출할 수 있음
- 공연 및 시각 예술 분야
 - 직업 예술가가 되기 위한 전문 기술 등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
 - 유명 국내외 기관 및 예술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학생들은 졸업 후 광고, 패션 및 제품 디자인 등의 분야로 진출
- 21세기 첨단기술 분야
 - 급변하는 21세기 첨단기술 습득 및 기업가정신 함양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
 -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실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실용적인 경험을 많이 쌓도록 함
 - 디지털 미디어 및 디자인, 전자 기기 생산, 재무 및 회계, 식품 제조 및 조리, 미학 분야 등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음
 - 학생들은 졸업 후 호텔 및 대학, 산업 연구소 등의 전문 분야로 진출



[그림] 델리NCT 정부의 특성화 우수학교 홈페이지

COURSE OF ACTION

ADMISSION SCHEDULE FOR SCHOOL OF SPECIALISED EXCELLENCE

Registration for admission	Last day of registration	Entrance Test
Aug 12	Aug 19	Aug 23-29 in the 20 SSoE

- Candidates will be communicated about the centre once registration is completed
- Apply online at www.edudel.nic.in

ADMISSION CRITERIA

- Students need to be residents of Delhi
- At least **50%** students admitted to SSoE will be from government schools

SCHOOLS WITH SPECIFIC STREAMS

STEM education ➤ Rajkiya Pratibha Vikas

[그림] 특성화 우수학교 원서 접수 안내 신문 기사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schools-of-specialised-excellence-open-for-admissions-50-of-seats-for-govt-students/articleshow/85285019.cms>

http://edudel.nic.in/upload/upload_2021_22/145_151_dt_11082021.PDF

<http://edudel.nic.in/sose/faqs.html>

<http://edudel.nic.in/sose/about-us.html>

<https://www.educationworld.in/delhi-govt-to-start-20-specialized-excellence-schools/>

<https://www.edudwar.com/list-of-20-schools-of-specialised-excellence-ssoe-in-delhi-all-set-to-start-from-15-august/>

박 효 택 통신원, korindo100@gmail.com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위한 ‘거리 및 고속도로 전략’ 발표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 도시교통

샌프란시스코시는 샌프란시스코의 향후 교통 관련 목표를 포괄하는 ‘거리 및 고속도로 전략’을 발표. 이 전략은 보행자의 안전, 기후변화 대응, 걷기와 자전거 타기에 좋은 도로 네트워크 구축, 고속도로 개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의 복구 등에 중점을 둬

배경: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의 필요성

- 도로는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주어진 공간 안에서 사람과 물자의 효율적 이동을 이끌어내야 함
-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동네가 단절되고 대기오염이 심화되며 보행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
-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대체수단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카풀, 대중교통, 자전거와 같은 자동차 대체 수단의 이용이 원활해야 함
 - 샌프란시스코 온실가스 배출량의 48%는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승용차와 트럭에서 배출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위한 ‘거리 및 고속도로 전략’의 주요 내용

- 현재 운영 중인 교통시스템의 유지와 재투자
 - 도로 유지 보수의 중요성
 - 유지 보수가 잘된 도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도로 정비할 때에도 비용이 적게 듭
 - 또한 정비가 잘된 도로는 자동차 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수리비용을 감소시킴
 - 샌프란시스코시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시가 수립한 도로포장 성능 목표를 달성
 -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
 - 해안가와 주변 동네를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과 홍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방파제를 강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 도로에서 대중교통과 카풀을 우선시

-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 등에 대중교통과 카풀 전용 차로를 배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나 카풀 이용자가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
- 통행료 부과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 피크타임의 교통체증 완화
 - 또한 징수한 통행료가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

○ 걷기와 자전거 타기에 좋은 도로 네트워크 구축

-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 네트워크 구축
 - 자전거 친화적 도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
 -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자전거 타기와 걷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공간을 많이 제공



[그림] 자전거 우선 도로 현황



[그림] 향후 도로 네트워크 구축 계획

○ 모든 교통 프로젝트에서 안전을 최우선시

-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 비전 제로 프로젝트¹⁾를 통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전체 도로의 13%)에 중점 투자
 -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도로는 대체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음

1) 비전 제로(Vision Zero) 프로젝트는 2014년에 시작한 프로젝트로, 2024년까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자 수를 0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

- 차량 통행속도 조절
 - 교통 진정²⁾, 교통용량 감소, 제한속도 감소 등을 통해 보행자를 보호
 -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들은 차량이 적색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보행자를 우선하지 않아서 발생
-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네를 복구
 -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단절된 동네를 다시 연결하고, 대기오염 저감방안을 마련
 - 피해를 입은 동네는 대부분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이 주로 거주하는 곳임
 - 고속도로 인근에 산업시설을 주로 배치하여 주거지역에서의 트럭 통행을 줄이고 대기오염 문제와 안전사고 등을 방지

<https://connectsf.org>

<https://www.sfcta.org/press-releases/transportation-authority-and-connectsf-release-san-franciscos-inaugural-streets-and>

<https://www.visionzerosf.org/about/what-is-vision-zero/>

https://safety.fhwa.dot.gov/ped_bike/univcourse/pdf/swless11.pdf

박 신 아 통신원, shinah.park3@gmail.com

2) 교통 진정(Traffic Calming)은 과속방지턱, 도로포장, 시각적 장치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통행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말함

세계도시동향 제511호

발행인 유기영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1년 11월 8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